

“진안홍삼축제 내년에 또 만나요” ‘무주반딧불축제’ 위상 높다

전국 유일 홍삼 주제 다양한 프로그램·공연 펼쳐... 방문객 호응 속 마무리

진안군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펼쳐진 ‘빠져나올 수 없는 즐거움-2024 진안홍삼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 유일 홍삼특구 고장인 진안군에서 펼쳐지는 전국 유일의 홍삼 주제로 한 프로그램 및 공연으로 모든 연령층에게 즐거움을 안기고 진안 홍삼의 우수성을 알리며 축제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특히, 진안홍삼 등 진안고원의 특산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페이백 해주는 행사와 홍삼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조한 홍삼양장, 홍삼정 등의 상품들을 시식해 볼 수 있는 많은 부스들에도 관광객들이 붐볐다.

또한, 진안고원 트로트페스티벌, 베베핀 해피콘서트 등 다양한 세대들을 대상으로 추진한 문화행사들도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주시에서 방문한 관광객 박모 씨



진안군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펼쳐진 ‘빠져나올 수 없는 즐거움-2024 진안홍삼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로 진안 홍삼의 우수성을 알게 됐는데 홍삼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과 공연도 마련돼 매우 즐겁고, 내년에는 지인들에게 적극 추천해 같이 방문하고 싶을 정도로 만족했다”고 전했다.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장은 “2024진안홍삼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돼 다행이다. 홍삼축제를 다녀간 모든 관광객에게 진안홍삼을 알리게 되어 기쁘

며, 내년에 또 즐거움이 가득한 홍삼축제로 개최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홍삼축제가 다녀가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진안군 대표축제인 진안홍삼축제를 더욱더 발전시켜 재미있고 알찬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즈 프로그램 부문 동상 수상

무주반딧불축제가 세계축제협회 월드(IFEA WORLD) 2024 연차총회(67회) 및 피너클 어워즈에서 프로그램 부문(Best Event Within Existing Festival) 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프로그램 부문은 피너클어워즈 수상 분야 중에서도 손꼽히는 분야로 ‘호주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 2024/금상)’, ‘미국 샤롯 샤우트(Charlotte SHOUT/은상)’ 등 세계적인 축제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아시아축제협회 정강환 회장(배재대학교수)은 “무주반딧불축제의 생태적 가치에 대해 이번 연차총회에 참석했던 세계 축제 관계자들이 모두 공감했다”라며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이라는 세계적인 연구 목표와도 일치하는 축제라는 점에서도 거는 기대도 크다”라고 평가했다.

무주반딧불축제는 대표 프로그램인 ‘반딧불이 신비탐사’와 ‘1박 2일 생태탐험’, ‘반딧불소풍’ 등 자연환경과 반딧불이 등 청정 무주의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마다 방문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2024. 8. 31. ~ 9. 8.)는 친환경 실천 인증 프로그램과 폐품 재활용 경진대회, 반디 친환경 콘서트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친환경 존’을 조성해 친환경 에너지(태양광 발전)를 사용해 주목을 받았다.

또 폐현수막을 활용해 그늘막과 앞치마를 제작·사용하고 먹거리 부스에서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실천을 주도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생태환경축제에 호평을 이끌어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수상으로 세계축제 무대에서 무주반딧불축제가 존재감을 드러내며 K-축제의 위상을 드높였다”며 “지난해 아시아축제협회에서 주관한 피너클어워즈에서 예코 투어리즘 분야 수상에 이은 수상으로 글로벌 축제로서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세계인들과 함께 반딧불이가 전하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축제협회 월드(IFEA WORLD) 2024 연차총회 및 피너클 어워즈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10개국 110개 도시가 참가한 가운데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시 워넨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됐다.

세계축제협회 월드는 1956년 설립,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세계 50개국 3천여 명의 정회원과 5만여 명의 준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축제 중심 기구로 알려져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장수군민의 날 기념식 장수군민 체육대회 성료

장수군은 지난 5일 개최된 탄신 제450주년 의암주논개 제전·제57회 군민의 날·제56회 장수군민 체육대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해 최한주 군의장과 의원, 기관사회단체장, 해주 최씨와 신안 주씨 종친회, 지역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 앞서 의암사 영정각에서 의암 주논개의 애국충절을 기리는 논개 제례 봉행이 거행됐다. 이어 7개 읍·면의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입장식을 시작으로 진행된 1부 기념식에서는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 발전에 앞장서 온 군정발전 유공자 이지숙, 육종윤, 윤재석 씨에 대한 시상식이 이뤄졌다.

또한, 제42회 군민의 장 수상자인 문화체육관광 유영재(76)씨, 산업업국장 박순도(77)씨, 애향장유계선(88)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이와 함께 제17회 의암 주논개상 수상자 조현욱 씨에 대한 추대식도 거행됐다.

제56회 장수군민 체육대회에서는 축구, 족구 등 총 11종목의 경기가 펼쳐졌으며 군민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서로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장수=고관호 기자

황단대제 봉행 105주년 기념행사

국태민안 기원 높은 뜻 기러

해마다 음력 8월 그믐에 진안 주천면(朱川面) 대불리(大佛里) 화양산(華陽山) 정상에 자리잡은 화양산 황단(皇壇)에서는 수당(守堂) 이덕응(李德應) 선생(先生)의 제자(弟子) 및 후손(後孫)과 전주, 군산, 익산, 대전, 완주, 논산, 부안, 인천, 서울에서 온 유림을 비롯한 지방 유림들로 하여금 천극(天極), 상제 지극(地極), 공자인극(人極), 고종황제 등 삼극(三極)을 받들고 국가의 안위와 문화창달(文化興達) 및 조선왕국(朝鮮王國)에 따른 자주독립(自主獨立)을 염원하는 삼극제가 105년째 올려지고 있다.

올해는 지난 10월 1일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화양산 황단에서 유림, 제자, 후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쪽을 향하여 정오에 제물을 진설하고 성인 여에 따라 초헌관에 전춘성 군수가 헌작했고, 아헌관에 이부용(전주시 씨 중앙원 조직이사, 종헌관에 김순만(용담향교유림)장이 헌작했다.

황단은 1919년 고종황제(高宗皇帝)의 승하소식을 듣고 비탄강계 정안수(水)를 올리고 4배 통곡한 후 삼년간 초하루와 보름에 제자들과 화양산에 올라 3년간 망곡(望哭)한 후 날로 쇠퇴해가는 민심과 기울어가는 국운을 민회 하



고자 황단(皇壇) 설단(設壇)을 순종임금께 상서를 올려 다음과 같은 비답을 받아 학문은 천인을 깨웠고 의기는 해와 별처럼 빛나니 유학(儒學)의 적통(嫡統)이요 우리 동방의 유종이다. 이에 화양산에 높은 의리가 우뚝하니 바른 학문으로 순수한 충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비답을 받아 전라 충청지방을 중심으로 사방 100리 안에 주천면 대불리 화양봉, 무릉리 선암봉, 신양리 제천봉, 정천면 갈용리 천황봉, 충남(忠南) 금산군 두문봉, 파초봉, 유재봉 등 7처에 산재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소멸되고 오직 이쪽 화양산 황단만이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황단을 쌓은 주인공 수당(守堂) 이덕응(李德應) 선생(1866~1949)은 본관이 전주로 고종의 스승인 연재승병선(宋秉聲) 선생과 석정 이정직 선생을 스승이며 간재 전우(田淵)선생과도 교유가 있었던 거유(巨儒)였다.

선생은 덕흥대원군(선조대왕의 父)의 후손으로 8대조 풍래군은 현록대부

로 충신이며, 조(祖)는 사헌부 지평이었고, 부(父) 흥진은 동몽교관으로 효자며, 모(母) 해주씨는 열녀로 명실공히 충효열 삼강(三綱)을 갖춘 기문의 후손이다.

선생은 호남에서는 유일하게 십삼도 전선도장강(十三道 全鮮都講長)에 임명(任命)되면서 전국 각지방을 순방하며 유교정신양양(儒教精神 昂揚)과 학문 진작에 전념하는 인재(人才)를 구해 삼남지방에 250여명의 후학(後學)을 배출하고 배일독립사상(排日獨立 思想)을 기르는데 앞장서는 한편 화양도원 뒷편에는 삼극전(三極殿) 건립을 추진하는 등, 항일사상의 본거지로서의 당당한 면모를 갖추고자 했다.

그러나 일제의 극심한 탄압으로 삼극전 건립은 무산되고 터만 남아 그 뜻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황단대제만큼은 매년 8월 그믐(음력 8월29일)에 한번도 거르지 않고 봉행해 왔다.

수당선생이 타계하시고 조국이 광복된 후로도 선생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 받은 제자들과 후손들은 황단제를 그대로 봉행했다.

이같은 전통을 그대로 이어 받고자 화양산 황단보존회 제4대 회장 이종섭을 중심으로 전승될 것이며 이미 제자들은 ‘필생동도 수종종 삶을 마칠 때까지 수당선생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는 무리가 되어 길을 함께 하리라’는 계축년 4월 영귀대(詠歸臺)에서의 맹세를 되새기며 화양산 황단대제를 봉행하게 된 것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대표상징물(CI) 선포식 개최

장수군은 지난 5일 장수종합경기장에서 ‘의암 주논개 탄신 제450주년 기념 제57회 장수군민의 날 기념식-제56회 장수군민 체육대회’와 연계하여 ‘군 대표상징물(CI)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최훈식 군수, 최한주 군의회 의장, 박용근 도의원을 비롯해 각 기관·단체장 및 회원, 장수군민 약 1,0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상징물을 향한 군민들의 열띤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대표상징물 교체는 1999년 기존 대표상징물 도입 후 25년 만이고 새로운 대표상징물은 세 가지 대표색상을 사용해 첫물과 청정 산악지역의 고장, 대한민국 대표 레드푸드의 고장, 생태관광·산악레저·생명산업의 ‘ 으뜸 장수’를 형상화했다.

장수 그리므로 표현된 산의 형상은 청정자연과 고원지역을, 장수 블루로 그려진 두 갈래 물줄기는 금강과 섬진강의 상류수원 ‘물의 으뜸고장’을, 로



고에 포인트로 들어간 장수 레드와 그속의 씨앗 모양은 대한민국 대표 레드푸드의 고장을 의미한다.

선포식은 최훈식 군수와 내민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군의 변경된 대표상징물을 전격 공개하는 선포 세레머니와 함께 막이 올랐고 대표 상징물 홍보 동영상으로 군민들에게 첫 선을 보였으며 군민을 대표하는 군민의 장수상자에게 최훈식 군수가 대표상징물 배지를 수여하는 배지 수여식으로 군민 모두에게 새로운 대표상징물 변경을 알렸다.

특히, 선포식의 마지막에 진행된 대표상징물 카드섹션 퍼포먼스는 군민 전체가 함께해 선포식의 의미를 더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의회, 스토킹 예방 피해 지원 조례안 의결

진안군의회 이마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스토킹의 목적 및 정의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과 교육 △피해방지 및 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마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까지 보호조치를 통해 안전한 진안군을 만드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스토킹 행위까지 피해지원 범위를 넓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실질적인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제정 소감을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